

# 「존재의 긍정」을 규범적 관점으로 한 작업치료요법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작업치료·리허빌리테이션의 시대적 의의

타지마 아키코(田島明子)

## 1. 시작하며

- ◆ 본 보고에서는 「존재의 긍정」이라는 입장에서, 현행 작업요법이론·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.
- ◆ 그리고 현대의 작업요법·리허빌리테이션의 현대적 변천의 시대적 의의를 밝힌다.

## 2. 대상과 분석방법

### 대상

- ◆ 다음 네 가지 이론·사상을 대상으로 한다.
- ◆ 이들은 일본 작업요법학회에서 통용되는 대표적 이론·사상이다.

- ①작업행동이론
- ②인간작업모델
- ③캐나다 작업수행 모델
- ④작업과학

~ 네 가지 이론·사상에 대한 설명 ~

### 작업행동이론

- ◆ ①유능하고 싶다, 달성하고 싶다는 인간의 니즈(needs), ②일과 놀이의 발달적 측면, ③작업역할의 특성, ④건강과 인간 적응능력과의 관계를 기본적 개념으로 한다.
- ◆ 놀이에 관한 발달적 측면은 노동에도 연속되는 인간의 동기과 관련 있다고 하여, 놀이의 발달적 측면으로서 「탐색」(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에 작용하다), 「유능감」(과제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. 자기 자신이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), 「달성」(본인이나 주위의 기대에 따라, 혹은 본인에게 필요한 역할이나 과제를 완수한다), 등 세 가지를 든다.

### 인간작업모델

- ◆ 작업행동이론과 일반시스템 이론을 사용한 모델
- ◆ 의지, 관습화, 수행이라는 세 가지 서브시스템(sub-system)으로 성립.
  - 의지 서브시스템 : 사람이 행동을 일으킬 때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, 개인적 원인귀속(유능한가,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자기 이미지), 가치, 흥미에서 비롯된다.
  - 관습화 서브 시스템 : 일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며, 역할과 관습에서 비롯된다.
  - 수행 서브 시스템 :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인 정신-뇌-신체의 능력.
- ◆ 이러한 서브 시스템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.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정보나 에너지를 받아들이며, 환경에 작용하는, 상호작용을 수행하며,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내부 환경과 외부환경은 끊임없이 순환을 반복한다고 가정한다.

### 캐나다 작업수행 모델

- ◆ 세 가지 중심적인 사고방식:
  - ①클라이언트 중심주의 : 대상자를, 주체성을 가진 의지결정자로 간주하고, 작업치료요법은 작업요법사와 대상자의 협업(collaboration) 관계로 성립한다는 사고방식.
  - ②사람은 작업에 종사하는 니즈를 가진 작업적 존재라는 신념: 스피리츄얼리티(spirituality)라는 단어가 대응한다.
  - ③작업의 가능화(enabling occupation) :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, 작업을 가능하도록 하는, 이른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(enabling occupation)이 지향된다.



### 작업과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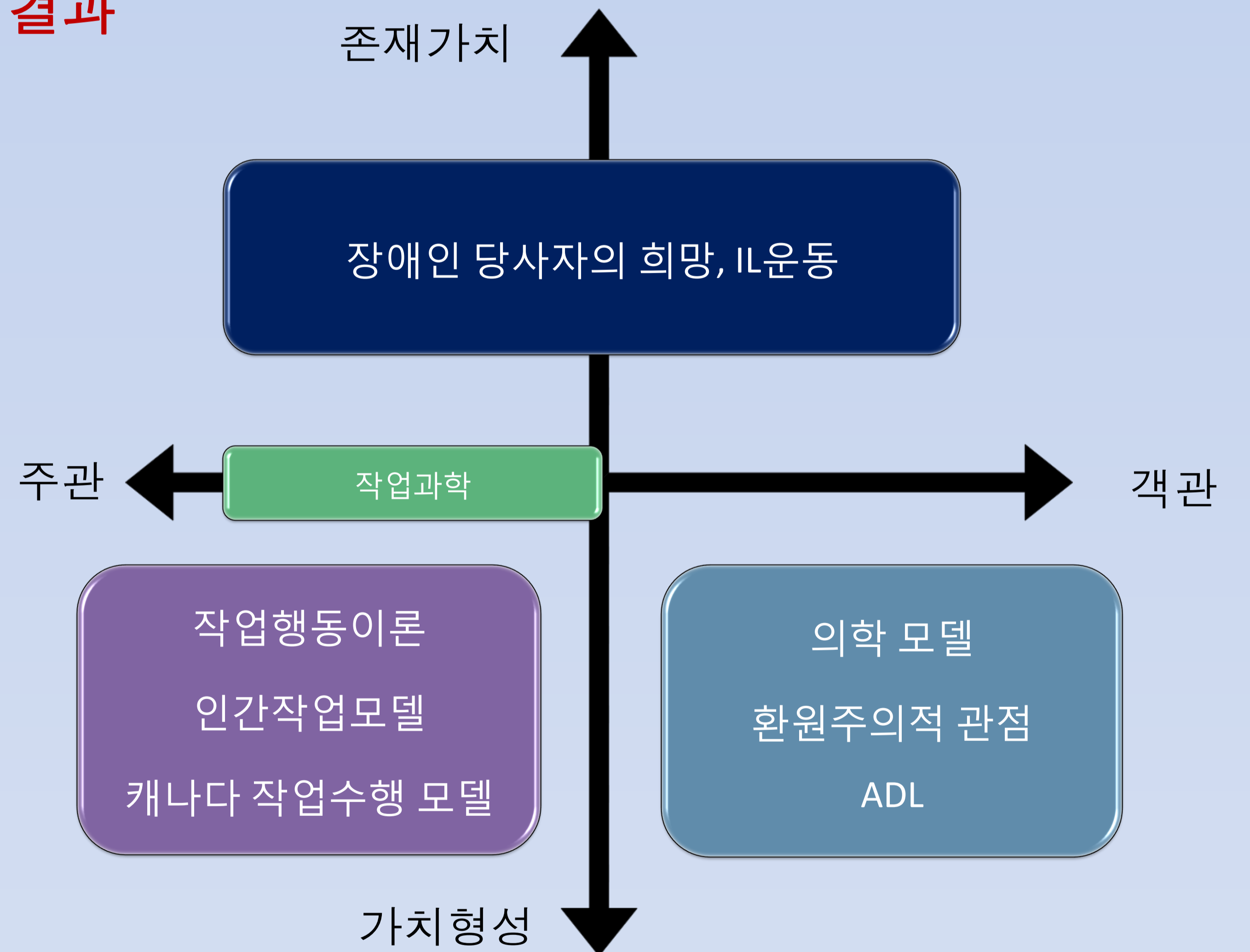
- ◆ 두 가지 연구관점
  - ① 인간의 작업을 형태(form), 기능(function), 의미(meaning)에 대해 연구한다.
  - ② 작업적 존재로서 인간을 연구한다.
    - 이러한 연구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계통적 지식을 집적하고, 세계에 존재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인간의 작업적 성질을 밝히는 것을 지향한다.
- ※작업과학과 작업요법의 차이
  - 작업의 의미를 치료적 의미로 한정할 것인가, 말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.

### 분석방법

- ◆비교검토 소재
  - 「장애당사자의 희망, IL(Independent Living : 자립생활) 운동」
  - 「의학모델, 환원주의적 관점, ADL(Activity of Daily Living : 일상생활활동) 능력의 향상」
- ◆분석축
  - 주관 / 객관, 능력가치/존재가치로 4분화
  - ~ 「주관 / 객관」 분석축의 이유 ~
- ◆초기 리허빌리테이션 학은 ADL을 지원할 목적이었지만, 최근에는 QOL(Quality of Life : 생활의 질)이 중시되고 있으며, **대상자 본인의 선택이나 선호를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.**
  - ⇒ 「객관」에서 「주관」으로 **착목점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.**
  - ⇒ 그 어느 쪽도 「장애·존재의 긍정」으로 **향할 가능성이 내재된 관점!**

주관 : 적응적 선호형성  
객관 : 다수파의 가치관에 좌우되기 쉽다

## 3. 결과



## 4. 고찰

결과로서, 1980년대 「ADL에서 QOL로」로, 리허빌리테이션의 목적이 변용된 배경에는 IL 운동의 사상적 영향이 있었다. 하지만 원래 작업요법, 리허빌리테이션이 다가서려 했던 장애인 당사자 사상과는 대극적인 방향으로 작업요법, 리허빌리테이션은 진행되어 갔다고 파악할 수 있다. 주관에 위치한 대상자 본인의 선택이나 선호가 중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.

그러한 상황은 현대의 작업요법, 리허빌리테이션의 변천을 「대상자에게 능력가치의 긍정성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해 온 역사」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. 즉 작업요법, 리허빌리테이션이라는, 건강 지향성을 가진 국민에게 작용하는 장치가, QOL이라는 개념으로 생활과 주관/객관을 결부시키고, 「자립생활능력이 높은 것이 좋다」고 간주하는 가치를 사람들의 기저에 침투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과정, 그것이야말로 작업요법, 리허빌리테이션의 오늘날의 방향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번역: 임덕영(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생)